

01 교회소식

2018 만민하계수련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참석하는 만민의 축제, 2018 하계수련회에 기사(奇事)와 표적, 영육 간에 풍성한 응답과 축복이 넘쳤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성결한 지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법사에 형통하여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모든 곳에서 사랑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03 기획특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렸어요!"

현장에 와 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시원한 날씨 속에 '2018 만민하계수련회' 체육대회가 진행되어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었다.

04 특집

한 여름 밤을 수놓은 아름다운 천국잔치

주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이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캠프파이어.

# 만민뉴스

제851호 2018년 8월 1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가득한 축복의 시간!

### 해외 25개국에서 참석한 '2018 만민하계수련회'



지난 8월 6일(월)부터 8일(수)까지 3일간,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2018 만민하계수련회'가 열려 행복이 넘쳤다.

GCN방송을 통해 생방송 되고 해외 25개국에서 총회장과 주의 종 및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불어, 태국어, 독일어, 몽골어, 베트남어 총 10개 언어로 동시통역되었다. 또한 해외에서 참석한 농아 성도들을 위해 8개 언어(한국, 영어, 말레이시아, 태국, 라트비아, 덴마크, 독일, 중국)의 수화로 진행되었다.

올해에도 성도들의 온몸에 친근히 날아와 앉는 잠자리와 전국적인 폭염 가운데에도 수련회가 진행된 무주덕유산리조

트 점핑파크에서는 시종 바람과 비, 구름 등을 통해 23~26도의 최적의 기온과 날씨로 조절되는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고 센 땅과 같이 늘 하나님의 공간 안에 보호 받는 사랑과 은혜를 더욱 체험하였다.

#### 선과 믿음, 순종이 곧 응답의 열쇠 갓가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교육'

첫째 날 교육 시 강사 이수진 목사(교역자회 회장)는 '영계'(요 4:24)라는 제목으로 영의 세계는 선과 사랑과 진리로 가득한 공간인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바가 실상으로 나타나는 세계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영계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

리는 열쇠는 선과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 뒤 강사 이수진 목사는 회개하는 찬양과 기도를 인도한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단 위에서 참석자 전체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 예능위원회 위원장 이희진 목사,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가 미리 환자 접수한 성도들에게 직접 손수건 기도를 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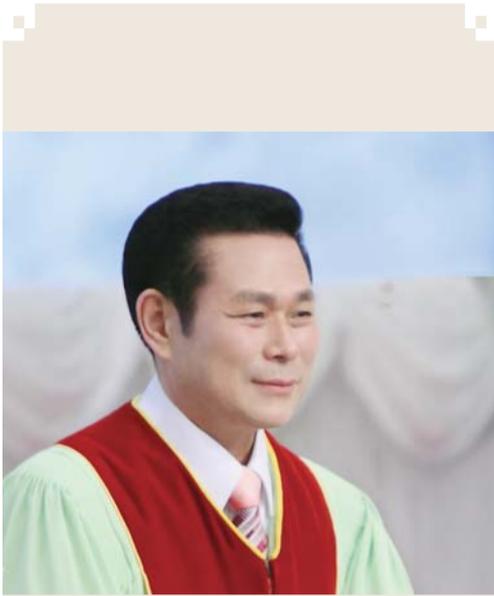
그 결과 폐암, 뇌전증으로 인한 신경 손상, 아토피성 피부염, 척추 결핵, 편마비, 언어장애, 인대 파열 등과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환이 치료되고 시력, 청력이 회복되는 등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이 밖에도 해외 6개국에서 참석한 28명의 농아 성도 가운데 24명이 귀가 열리거나 이전보다 더 잘 들리게 되었으며, 뼈암으로 고통받던 성도는 성령의 불을 받고 치료되었다고 간증하였다.

특히 전 세계 곳곳에서 GCN방송과 인터넷으로 함께하던 성도들에게 시공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유튜브로 스페인에서 수련회에 참여한 이베니가브리엘라 성도는 어지러움증과 두통, 구토 등을 치료받았고, 인도 델리에서는 성도들이 보행 장애와 신장 결석, 각종 통증을 치료받았다고 간증을 전해왔다.

# 성결한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17~18)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교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과 장수, 명예와 권세, 부귀와 영화, 지식과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지혜가 기록된 잠언 3장 13~17절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잠 4:7), “하나님의 미려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전 1:25) 교훈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8~20절에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려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려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귀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하고 간교한 꾀도 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수 없으니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모든 일에 형통하며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자신이 있는 곳에서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 1. ‘위로부터 난 지혜’란 무엇인가?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했는데,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했고, 16장 6절에는 “...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사랑,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고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되물으시지요. 이에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혜롭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율법사는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라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마음에 사랑이 없음을 아셨지만,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서 깨우칠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은 보고 피해 지나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였지만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 돌봐주었다면 네 의견에는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이방 민족과 혼혈되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율법사는 어쩔 수 없이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라고 대답하시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사에게 이웃 사랑이 없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시면서도 충분히 깨우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에 선이 부족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상대를 찌르기도 하고 무안을 주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찌르지 않더라도 상대의 악한 의도를 눈치 채고 비꼬는 말로 되갚아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선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요, 선의 지혜이지요.

## 2. 성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의 지혜

하나님께서서는 빛이시며 선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면 성결한 만큼 성령의 인도와 주관을 받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는 것과 흡사합니다. 마음에 악이 없는 것이 성결의 기본 조건이듯이 성결한 지혜를 받을 때에도 마음에 선이 있는 만큼 더 섬세하고 깊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선한 방법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누군가 선한 지혜를 알려 준다 해도 그 방법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의 악을 버리는 것이 지혜를 받고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마음에 악이 없는 사람은 대화할 때에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선한 표현을 씁니다. 곱고 은혜로운 말, 누가 들어도 덕스러운 말을 하지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표현은 하지 않고, 선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선하고 덕스러운 말이나 선한 기도는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은연 중에 악이 배어나오지요. 반대로 마음이 선하면 자연스럽게 선한 기도, 선하고 덕스러운 말만 나옵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나 말로 인해 주변의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선한 의도로 말했는데 도리어 난처한 입장에 놓이거나 비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럴 때에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겨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 입장을 변명하면 할수록 잘못된 인식만 쌓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론하여 억울함은 밝혀낸다 해도 그 과정에 타인의 허물이 드러날 수도 있지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서로 감정이 상해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니 더욱 감정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아라” 말씀했습니다. 변론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화평이 깨져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진정 지혜롭고 선한 사람은 결코 변론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잠잠하고 상대를 풀어줄 때 진실이 전해져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리게 되지요.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상대의 마음이 녹아져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혹여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잠 3:6).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면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때가 되면 친히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성결한 지혜입니다.

평소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그러합니다. 선하고 감동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약이 있으면 기도 속에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악한 감정이 있으면 “선하게 기도하라”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안다 해도 그것을 활용할 줄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해도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 있으니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지요. 믿음 없는 부정적인 기도, 남의 탓을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지, 하나님을 서운케 하고 응답받지 못할 기도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선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신속히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약 5:16).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하고(삼하 14:25) 지혜도 뛰어났지만 마음이 악하여 자신의 지혜를 악한 데 사용했습니다. 압살롬은 이복 만형인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범한 일로 분개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다윗이 암논의 잘못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도 불만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선불리 드러내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2년 뒤, 압살롬은 양털 깎는 행사에 암논을 초대한 후 부하들을 시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피해 멀리 달아나지요.

시간이 흐르고 이 일로 슬퍼하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지만, 다윗은 이후로도 2년 동안이나 그를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신이 아버지 다윗의 눈 밖에 났다는 것을 안 압살롬은 앙심을 품고 반역을 도모합니다.

심복 무사들을 키우고 무기와 병거를 마련하며 반란을 일으킬 친위부대를 양성하지요. 그리고 마치 아버지 다윗왕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교묘하게 백성을 포섭해 민심을 얻고 신뢰를 쌓아갔습니다(삼하 15:2-6).

마침내 압살롬이 때를 잡아 반란을 일으키니 다윗은 황망히 쫓기는 처지가 되었지요. 압살롬은 다윗의 수하에 있는 모사 아히도벨까지 자기편으로 만듭니다. 아히도벨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가 어떤 모략을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반이라 할 정도였습니다(삼하 16:23).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어둡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이 단번에 다윗을 제압할 작전을 내놓았지만 압살롬은 다윗에게 유리한 작전을 제안한 후세의 말을 들었지요. 지혜로운 압살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시니 멸망의 길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성결한 지혜가 아니라면 물거품처럼 헛된 것임을 깨우쳐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며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선한 방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도, 깨달은 대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도 먼저는 마음의 성결을 이뤄야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성결한 지혜를 구해 범사에 형통하며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선이 없는 지혜는 헛된 지혜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상쾌한 바람까지, 최적의 날씨가 펼쳐진 '체육대회'

둘째 날 오전, 체육대회는 영상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시작하였다. 1대대팀(중국교구·해외교구 포함), 2대대팀, 3대대팀, 지교회팀(국내외 지교회 및 해외 성도)이 줄다리기, 애드벌룬공굴리기, 100m달리기, 오래달리기, 팔씨름, 이어달리기 이상 6개 종목에서 18개 금메달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올해의 우승은 3대대팀에게 돌아갔으며, MVP는 남녀오래달리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수상한 3대대 이흥국 성도와 이재아 자매에게 주어졌다.

전국적인 폭염 속에서도 체육대회 내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시원한 바람을 계속 불어주심으로 점핑파크에서는 26도의 기온으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만민'이라는 이름으로 주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화평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어 경기를 펼치니 행복이 배가 되었으며,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었다.



**변화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과 감사의 향, '캠프파이어'**

둘째 날 저녁, 캠프파이어는 감사 이수진 목사의 인도로 예능위원회 소속 금관양상블, 닥시 오케스트라 String, 파워워십팀, 글로리워십팀,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탈싱어즈가 함께하여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였다.

제1부에서 성도들은 허상이 아닌 실상을 바라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그 사랑과 함께 성결의 복음과 목자의 권능을 전 세계 만민에게 전파할 비전을 되새기며 뜨겁게 찬양하였다.

이어 형형색색의 화려한 불꽃쇼가 진행되었으며, 제2부에는 '영원한 곳',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JESUS',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랑합니다 만민의 양 떼여' 등을 마음 다해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그날까지 꽃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것을 다짐하였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li> <li>●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li> <li>●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li> <li>●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li> <li>●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li> <li>●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li> <li>●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li> <li>●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li> <li>●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li> <li>●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li> <li>●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li> <li>●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li> <li>●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li> <li>●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li> <li>●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li> <li>●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li> <li>●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li> <li>● 새창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li> <li>● 새창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li> <li>●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li> <li>●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li> <li>●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li> <li>●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li> <li>●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 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li> <li>●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li> <li>●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li> <li>●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li> <li>●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li> <li>●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li> <li>●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li> <li>●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li> <li>●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시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li> <li>●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li> <li>●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li> <li>●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li> <li>●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li> <li>●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li> <li>●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li> <li>●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li> <li>●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li> <li>●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li> <li>●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li> <li>●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li> <li>●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li> <li>●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li> <li>●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li> <li>●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li> <li>●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li> <li>●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li> <li>●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li> <li>●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 ☎031)905-2419, 010-2352-8336</li> </ul> |
|--|---|--|--|---|